



# 세대 아울렀던 배우 안성기, 모두의 기억으로 남다

향년 74세... '금관문화훈장' 추서  
영화제작자 부친 영향 아역으로 출발  
멜로부터 코미디까지 폭넓은 연기  
'화려한 휴가'·'아들의 이름으로' 등  
5·18 다룬 작품 출연...지역민 애도

"날 쏘고 가라"(실미도), "그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부러진 화살),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라디오스타).... 평생 스크린을 통해 분노와 유머, 연대의 언어를 남겨온 '국민 배우' 안성기가 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안성기 배우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께 안성기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자택에서 식사 중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진 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안성기는 지난 2019년부터 혈액암 투병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회복에 전념하며 작품 복귀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2023년까지 새 영화 작업과 공식 행사 참석을 이어가며 활동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2024년 들어 병세가 악화됐고, 이날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과 작별했다.

특히 '화려한 휴가' (2007·김지훈), '아들의 이름으로' (2021·이정국) 등 5·18을 다룬 작품에 출연하며 광주의 아픔과 함께해왔던 터라 지역민들은 "큰 별이 졌다"며 애도를 보내고 있다.



‘국민배우’ 안성기가 5일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왼쪽부터 안성기 출연작 ‘고래사냥’, ‘아들의 이름으로’, ‘화려한 휴가’의 한 장면.

2021년 '아들의 이름으로' 개봉 당시 그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광주의 상처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고 느꼈다"며 "영화를 통해서라도 치유되지 않은 분들의 아픔에 작은 위로를 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60여 년을 함께해온 '가왕' 조용필과의 오랜 인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 경동중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학창 시절 짝꿍이자 이웃으로 지내며 연예계에서도 각별한 우정을 이어왔다.

안성기는 2018년 조용필 데뷔 50주년 릴레이 인터뷰의 첫 주자로 나섰고, 조용필은 안성기의 출연작 '실미도' 장면을 토대로 정규 18집 타이틀곡 '태양의 눈'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이날 조용필은 빈소를 찾아 "아렸을 때부터 늘 함께하던 좋은 친구였다"며 "성기야, 또 만나자"는 인사를 남겼다.

1952년생인 안성기는 한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국민배우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선했던 영향력을 발휘했다. 아역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70년 가까운 시간을 스크린과 함께했던 것. 영화 제작자였던 부친 안화영 씨 영향으로 영화계에 입문한 그는 김기영 감독의 작품 '황혼열차' (1957)에 아역으로 출연하며 영화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장호 '바람 불어 좋은 날' (1980), '만다라' (1981·임권택) 등 당대 거장들의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기활동을 펼쳤다. 사회적 현실과 개인의 내면을 포착한 섬세한 연기로 대중상영화제 남우주연상,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연기상 등을 수상하며 이름을 각인시켰다.

1990년대 이후에는 멜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그대 안의 블루' (1992·이현승), 한국 최고의 코미디 영화 '투캅스' (1993·강우석),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999·이명세), 최초의 천만 영화 '실미도' (2003·강우석) 등 장르와 규모를 초월해 폭넓은 연

기를 선보였다.

배우로서의 존재감만큼이나 영화계 현실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2000년부터 스크린쿼터 수호천사단 단장을 맡았고, 2006년에는 스크린쿼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영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굿다운로드' 캠페인 홍보대사로도 나섰다. 2013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 2024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정부는 이날 고인에게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시한다고 밝혔다.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훈장을 전달했다.

한편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다. 장례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9일 오전 9시다. 장지는 경기 양평 별그리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한파 영향? 광주·전남 12월~1월 사망자 가장 많아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폭염·한파에 건강 취약성 높아

광주·전남에서 최근 10년새 1월과 12월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 때 받은 한랭 스트레스가 수일간 이어지며 심뇌혈관·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방증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광주를 포함한 6대 광역시에서 한파가 들어닥친 이후 초과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5일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최근 10년간(2015~2024년) 월별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은 12월~1월로 나타났다.

2015년 3월과 2016년 2~3월, 2022년 3월, 2023년 10월을 빼고는 해마다 12월 또는 1월에 가장 많이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0년에는 광주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달은 12월(694명)이었고, 전남은 1월(1648명)이었다. 2021년에는 광주(733명)와 전남(1618명) 모두 12월에 많았다. 지난 2024년 사망자가 최다를

기록한 달은 1월이었다. 광주에서는 838명, 전남은 1853명이 사망하면서 전체의 9.2%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월에도 광주 988명·전남 2218명 등 총 3206명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 2018년 광주 등 국내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겨울철 사망률 증가와 기온 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대상 도시에서는 한파 내습 이후 초과사망률이 증가가 관찰됐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사망률이 더 높았다. 한파의 건강 영향은 고령자에게 수일간 더 지속하는데 질환별로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는 한파가 지나간 5일 후 최대 12.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의 사망률은 한파 3일 이후 최대 22.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근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폭염·한파 등 극한 기상에 대한 건강 취약성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며 "겨울철에는 저체온증, 동상·동상 등의 한랭 질환 예방과 더불어, 고령 및 심뇌혈관계 질환자들은 한파가 올 때는 갑작스레 무리를 주는 신체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외 방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한랭 스트레스를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10→5% 단계적 인하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견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견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연합뉴스

## 광주시, 결식 아동 급식비 '1만 원'으로 인상

물가 상승 선제 반영 500원 인상

광주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한끼당 1만원으로 인상한다.

광주시는 5일 성장기 아동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단가를 기존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최근 가파르게 오른 외식 물가를 고려할 때 기존 단가로는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6년 급식비 권고 단가인 1만 원을 1년 앞당겨 선제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가정 형편상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약 1만 3000여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시비 155억원과 구비 52억원, 시교육청 분담금 25억원 등 총 2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식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급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급식카드를 이용해 지역 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4만 8000여 개 가맹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나하나 광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결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